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114]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6 (4)108여단 주둔지-(7)성산일출봉 특공기지  
등록문화재 불구 무관심속 방치

입력 : 2008. 08.21. 00:00:00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특공기지가 구축된 성산일출봉 해안가. 이곳에는 경사진 층리를 따라 모두 18곳의 갯도가 만들어졌다. /사진=이승철기자

### 해안 조간대상에서 유도로 시설 처음 확인 갯도 18곳 분포... 日 자살특공기지로 구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기지였다. 특히 이곳에는 당시 일본 해군 특공정을 발진시키기 위한 유도로 시설이 남아있는 것이 취재팀에 의해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출봉 해안 특공기지는 무속인들에 의해 비범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특공기지는 일제 침략야욕을 보여주는 아픈 역사현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의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팀이 갯도앞 조간대 상에서 발견한 유도로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길이가 1백m에 이르는 갯도내부.

일출봉(고도 182m) 해안에 구축된 일본군 갯도는 모두 18곳에 이른다. 병커형 시설물 2곳과 입구가 세 곳인 왕(王)자형에 유사한 갯도 1곳, 해안가에 직선형으로 굴착한 갯도 15곳이 확인된다. 갯도는 응회암층을 뚫고 만들어졌다. 병커형 시설물은 시멘트와 자갈 등을 혼합해서 아치형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형태다. 길이는 6~7m 정도다. 현재 이곳은 해녀들의 작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공기지의 부속시설로 만들어졌으나 인위적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일출봉 해안에 구축된 갯도 가운데 가장 긴 것은 왕자형에 유사한 갯도다. 이 갯도는 길이만도 1백m 정도에 이른다. 내부 폭과 높이는 각각 4m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크다. 갯도의 규모나 구조로 볼 때 일출봉 특공기지의 조정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갯목흙과 곡괭이 흔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 갯도는 구조적으로는 서우봉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직선형으로 뚫린 갯도는 길이가 대부분 29m 안팎이며, 길이 15m 정도인 것이 3곳 있다. 또한 일부 갯도 바닥에는 갯목흙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갯도 앞에는 직사화기 등으로부터 엄폐나 은폐를 하기 위한 방호벽 시설이 남아있다. 방호벽은 바닷가 돌로 쌓고 시멘트를 바른 형태다.

해안가 갯도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간대 상에서 찾아낸 유도로 시설이다. 유도로 시설은 파도에 의해 일부 멸실되는 등 훼손된 상태다. 때문에 밀물때면 잠겼다가 썰물때만 볼 수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왔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도로 시설은 3곳이다. 길이는 가장 긴 것이 약 40m, 폭은 5m 정도 된다. 시멘트와 바닷가 자갈을 혼합해서 바다쪽으로 경사지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도로 시설은 한경면 고산 수월봉 해안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출봉 해안 특공기지 갯도는 대부분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졌다. 당장이라도 특공기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다.

일출봉 해안 특공기지는 어떤 용도로 구축됐을까.

1945년에 접어들면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위기에 몰린 일본군이 전개한 작전은 특별공격이다. 특별공격이란 비행기에 폭탄을 싣거나, 혹은 어뢰를 개조한 카이텐(回天)이나 보트에 폭약을 장착한 채 미군 등 연합군 함정에 부딪치는 자살공격을 말한다. 당시 제주도에도 이러한 자살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기지 5곳이 만들어졌다. 즉 일출봉 해안을 비롯 서우봉 해안, 송악산 해안, 수월봉 해안, 삼매봉 해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측 문헌에 따르면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 특공부대는 진해경비부 소속 제45진양대, 119진양대, 120진양대 등 3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1945년 4월 제주에 상륙했다. 이 가운데 일출봉 해안에는 제45진양대가 배치됐다. 총 정원은 1백88명으로 일출봉 해안에 구축된 갯도는 바로 이들을 위한 자살특공기지인 것이다. 갯도는 특공병기인 진양(震洋)을 숨겨놓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진양은 목재로 만든 소형보트로 트럭엔진을 장착했다. 앞부분에는 250kg의 폭탄을 탑재한 채 사람이 직접 조종해서 함정에 부딪쳐 공격을 감행한다.

일출봉 해안 특공기지는 태평양전쟁 말기 무차별적으로 전개했던 일제의 전쟁야욕을 극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일출봉 해안마저 전쟁기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침략성을 읽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 포커스]정비 및 보존대책 마련돼야

성산 일출봉(고도 182m)은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됐다. 약 5천년 전을 전후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화산분출이 시작돼 지금과 같은 전형적인 응회구가 만들어졌다.

일출봉은 섯시(Surtsey)형 화산의 탄생 과정과 구조를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화산체로 꼽힌다. 정상부 사발 모양의 분화구는 장축이 약 570m에 달하며, 면적은 2.64km<sup>2</sup>에 이른다. 분화구 바닥 최저 고도는 89m다.

일출봉 특공기지는 해안가의 가파르게 경사진 층리를 뚫고 만들어졌다. 내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지만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차츰 훼손되고 있다. 이곳은 제주도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 가운데서도 특공기지로 구축됐다는 점에서 다른 동굴진지와는 차별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에 남아있는 아픈 역사현장이라는 점에서 보존 및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등록문화재로 등록시켜 놓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일출봉과 연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정비·보존·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조천읍 서우봉 해안 특공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